

#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인식이 개발과 보전에 미치는 영향

- 울산광역시 달천철장 유적을 중심으로 -

손호기\* · 김용수\*\* · 김규호\*\*\*

\*경주대학교 관광진흥연구원 ·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

\*\*\*경주대학교 관광학부

## I. 문제제기

관광개발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략 및 수단으로서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지역 관광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즉, 지역의 관광 활성화의 성패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즉 지역자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와 관광 자원화 및 관광 상품화 노력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주5일근무제 및 소득 수준 향상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이러한 관광 수요 변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 유치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관광개발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는 각종 관광개발 계획은 관광자원의 보존과 이용측면에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관광자원이 울산의 달천철장 유적지이다. 울산 달천철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달천철장은 경주와 연결되는 7번 국도와 울산공항과 인접할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등 대도시가 배후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용과 개발 수요가 높은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달천철장은 삼한~조선시대까지의 철광석의 원산지였으며, 철광석의 산출은 국가의 기반산업으로 삼국시대 국가의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울산지역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산업수도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지역의 산업도시 이미지와 지역의 역사성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일원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서 달천철장의 주변 부지 축소, 문화재 해제 등의 관광개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달천철장 유적지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해 주민들간 찬성과 반대의견이 양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대립은 관광개발이 인문 및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관광개발의 주요 대상이 자연환경이며 개발 대상지역 주민의 삶의 공간을 변화시켜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관광개발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및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고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Johnson, Snepenger and Akis, 1994: 630). 관광개발의 영향에 대한 주민인식을 파악할 필요성은 관광개발이 자연환경과 같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인문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관광개발에 의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광지 주민인식은 경제, 사회·문화적 효과와 같이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에 대체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석희, 1987; 심상도, 1992; Liu, Sheldon and Var, 1987; Liu & Var, 1986; Milman & Pizam, 1988; Dogn, 1989; Farrell & Runyan, 1991). 따라서 관광개발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주민인식이 울산 달천철장과 같은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관광개발 계획 방안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의 필요성은 관광개발에 의한 편익을 향유하는 인식 정도에 따라 관광 자원 변화에 대한 주민의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 인식 정도에 따라 관광 자원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관광개발계획 방안에 반영하는 것이 관광개발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인식을 파악하고, 주민인식 정도에 따라 관광자원 보존의 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인식

관광개발이란 일정한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지니고 있는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라 편의를 증진시키고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목적을 가진 하나의 개발 형태로 지역 또는 국가의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tourism)과 ‘개발’(development)이라는 복합어로 구성된 관광개발은 개념 정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명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논자에 따라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관광개발에서 표현되는 ‘개발’은 발전의 의미를 내포한 채 사용되고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발전의 유사개념인 성장(growth)이 사회체계자체(social system itself)의 구조적 변화 없이 단순히 양적 확장을 의미하는데 반해, 발전은 사회체계의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의 상태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제반 활동 또는 과정이 개발이라고 할 때, 관광개발은 넓은 의미에서 관광자의 관광욕구충족과 관광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개개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관광개발이 추구하는 목표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관광자원 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광자 욕구 충족과 이용의 형평성에 의해 인간의 복리후생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자원관리 측면에서는 관광자원의 고유성 보존과 가치증대를 도모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김규호, 2004 : 359). 그러나 관광개발에 의한 변화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기 마련인데, 대체로 개발의 규모가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김사현, 2003; Wall, 1997). 따라서 관광개발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발 규모와 관광객 수를 소규모로 하고, 개발속도를 지역 실정에 맞추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관광 개발이 양적 성장과 외부 지향적 개발 방식보다 가치지향적인 동시에 질적 변화를 추구하여, 그 효과가 지역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한 관광개발은 지속적으로 관광 활동이 가능하도록 높은 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관광 활동의 한계 규모를 설정하여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개발에 의한 경제, 사회·문화 및 환경적 측면을 상호개발체계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규호외, 2001: 149-150). 관광개발은 자연환경훼손과 같이 명백한 물리적 손실을 끼치기도 하지만, 가치체계, 개인적 행태 및 가족관계, 생활양식, 전통적 의식(ceremonies), 공동체 의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의 상품화에 의한 고유성 상실, 문화의 화석화와 같은 관광지의 사회·문화적 변화도 초래한다(Milman & Pizam, 1988: 191). 관광개발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데 있지 않고,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할 때 관광의 사회·문화적 효과에서 등장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개발계획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광개발이 경제, 사회·문화 및 환경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I. 결론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 인식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관광자원 개발과 보전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 달천철장 인근 달천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울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지역주민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최근 울산 달천철장을 관광자원화하고자 “쇠부리문화축제”를 비롯하여, “달천철장 역사사진전”, “달천철장 공원화” 등의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기간은 2006년 6월 16일~18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비획률 표본추출 중 편의 추출방법으로 사전에 훈련을 받은 조사원들에 의해 직접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관광개발 계획의 사회문화, 경제, 환경적 영향에 관한 문항, 관광개발 계획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검색과정을 거쳐 유효표본을 336매를 최종확정하였고, 자료 분석은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 관광개발이 지역의 경제, 사회·문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인식과 관련한 28개 평가 문항 중 25개 변수가 6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관광개발 계획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FACT 1) 평균값 4.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환경적 측면의 긍정적 인식(FACT 2) 평균값 4.72점,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인식(FACT 3) 평균값 4.64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 달천철장의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인식은 사회·문화적 측면이 우선적으로 인식 되었고, 그 다음으로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대부분이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광개발계획의 부정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측면(FACT 4=평균값 4.03점)이 가장 많이 인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적 측면(FACT 5=평균값 3.94점), 사회·문화적 측면(FACT 6=평균값 3.29점)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 달천철장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달천철장 터를 정비하여 새로운 여가공간의 장으로 형성하고자 “달천 쇠부리 공원(가칭)”을 조성코자 지역주민

336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86%, 반대 14%로 나타나 관광개발계획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거의 6배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울산 북구 지역 주민들의 관광 개발계획에 대한 인식이 사회·문화적 측면과 환경 및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강한 것으로 최근 북구 지역의 새로운 주거단지 형성으로 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개발계획이 지역의 경제, 사회·문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인식의 요인을 파악하여 긍정적 요소는 부각시키고, 부정적 요소는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특히 관광개발에 ‘이웃간의 유대 관계 소원’, ‘범죄 발생’, ‘풍기 문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소음 공해’, ‘교통 혼잡’, ‘수질 악화’, ‘문화재 및 자연경관 훼손’ 등과 같은 환경적 측면의 부정적 인식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개발계획 수립단계와 개발의 집행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관광개발에 의해 주민들의 전통적 인간관계가 훼손되거나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발계획과 추진방법에 반영시킬 때 주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주민의 지지를 확보할 때 관광개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